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전화 : 86-10-6505-2671/3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발개위, <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15개 조치> 발표

■ 10월 25일, 발개위는 <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15개 조치>(《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》)를 발표함

- 동 15개 조치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△‘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’를 실시하고,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△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 하도록 장려 △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및 자재 운송 등 물류의 원활함을 보장 △외국인 투자 기업의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 :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주판(主板, 코스피에 해당), 창예반(科创板, 코스닥에 해당) 및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△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, 무역 통관 편리화를 제공 △외국인 투자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△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내 공장 이전을 지도하고,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발개위

https://www.ndrc.gov.cn/xxgk/zcfb/tz/202210/t20221025_1339087.html?code=&state=123

2 中 국무원, <자영업자의 발전 추진을 위한 조례> 발표

■ 10월 25일, 국무원이 지난 9월 제190차 상무회의에서 심사 통과한 <자영업자 발전 추진을 위한 조례>(《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》)가 발표됐으며, 2022년 1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임

- 동 조례는 총 39조항으로 구성됐으며, 주요 내용으로 △자영업자의 재산권, 경영권 등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,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△국가는 자영업자의 발전을 위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, 정부 및 관련

부서는 자영업자의 등록, 세금납부, 대출, 사회 보장, 고용, 지적 재산권 보호, 구제 등
방면에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 △자영업자 대상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불합리한
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△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, 정부 입찰에서
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임

- 한편,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에 따르면, 2022년 9월 기준 중국의 자영업자는 총 1억 1,10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국무원

http://www.gov.cn/zhengce/content/2022-10/25/content_5721592.htm

<http://news.10jqka.com.cn/20221026/c642479785.shtml>

3 中 은보감회, 신규 <금융회사 설립관련 관리방법> 발표

■ 10월 23일,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발전 및 실물경제 추진을
위해 신규 개정한 <금융회사 설립관련 관리방법>(《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》)을
발표했으며, 2022년 11월 13일부터 실시할 계획임

- 동 법규는 총 7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,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△시장진입
기준 및 대외개방을 확대. 외자기업이 대외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
제공하는 외자 금융회사를 설립하도록 허가 △금융회사 설립기준을 향상. 금융회사 설립
시, 기업의 이윤, 매출액, 등록 자본금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허가를
실시 △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등급별 감독관리를 실시 △금융회사에
대한 주주 지분 감독관리를 강화. 주주, 지배인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섭 행위를
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 △금융회사의 파산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, 파산 및
재정비 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관련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감독조치를 규정함

자료원 :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

<http://www.cbirc.gov.cn/cn/view/pages/ItemDetail.html?docId=1077325&itemId=917&generalType=0>

https://m.thepaper.cn/baijiahao_20333534

4 베이징시, <2035년 수도 표준화 발전 개요> 발표

■ 10월 14일, 베이징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,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한 <2035년 수도 표준화
발전 개요>(《首都标准化发展纲要2035》)를 발표함

- 동 <표준화 발전 개요>는 향후 표준화 관련 8개 방면으로 주요 목표를 제시했으며,

구체적인 내용으로 △징진지(京津冀; 베이징, 텐진, 허베이) 협동 발전을 추진 △중관촌 표준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인공지능, 블록체인,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관촌(中关村) 기업이 더 많은 산업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 △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위한 시범 작업을 수행하고, 디지털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△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통합을 촉진 △스마트시티 표준화를 가속화 △도시 교통 표준 시스템 및 교통 인프라 관련 표준을 개선하며, 자율주행, 스마트 하이웨이 등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베이징시 상무국

http://www.beijing.gov.cn/zhengce/zhengcefagui/202210/t20221014_2835588.html

5 하이난성, 〈수입 약품 통관 간소화 조치〉 발표..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

- 10월 10일, 하이난성 인민정부는 〈하이난성 자유무역항 약품 수입 통관 편리화에 관한 규정〉(《海南自由贸易港药品进口便利化若干规定》)을 통해, 2022년 12월 1일부터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약품을 수입 시 해관에 ‘수입 약품 통관서’ 제출을 취소함으로써, 통관 간소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
- 동 규정에 따라 수입 약품이 선적된 후 약품 수입 업체는 ‘중국 국제 무역 단일 창구’(“单一窗口”, 사이트 : <https://www.singlewindow.cn/#/>)를 통해 약품수입관련 필요한 자료를 제출. 항만 소재지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수입 약품 등록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당일 수입등록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정보를 해관시스템에 전송함
- 또한,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수입 약품 업체의 요구에 따라, 수입 약품 통관 증빙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,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힘

자료원 : 하이난성 자유무역항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XZHAkgFCjuCzDZz87TOxUw>

6 中 상무부,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

- 10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(Polyformaldehyde Copolymer)에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
- 동 건의 HS 코드는 3907.1010, 3907.1090 등임. 앞서 지난 2017년 10월 23일 중국 상무 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, 한국회사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은 6.2%~30.4%이었음

자료원 : 중국 상무부

<http://www.mofcom.gov.cn/article/zcfb/zczxzc/202210/20221003360442.shtml>